

제17회 평의원회 회의록

□ 개 요

- 일시 및 장소 : 2024.01.03.(수) 15:30~17:30 / 행정본관(E14) 제1회의실
- 참석자 : 재직 평의원 11인 중 9인 참석
 - 신하용(의장), 이창준(부의장), Mohammed Haruna Hamza, 고정식, 김소영, 김유승, 김진우, 박성동, 이동민
- ※ 대리인 : 기획처장 김경수
- ※ 배석자 : 입학처장 김용현, 예술융합센터장 석현정, 노동조합(유니온지부) 지부장 서성원,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안나

□ 주요 논의결과

- [제1호] 전기(제16회) 회의록 보고
 -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.
- [제2호] 직원 평의원 자격요건 논의
 - 직원 평의원 자격요건 논의에 대해 의장 및 간사의 설명이 있었음
 - 서성원 유니온지부장의 입장발표와 아래와 같은 질의·응답이 있었음

▶ 노동조합(유니온지부)의 입장

- 비정규직의 평의원 참여 여부에 대해 문의해왔으며,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평의원회 입후보자 자격을 요청
- 직원 평의원을 정규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, 평의원들이 무기계약직 직원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. 학연지원직·시설지원직은 입후보 자격이 되는데 무기계약직만 안된다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

1.(Q) 무기계약직원의 현원과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몇 명 있는지?

(A) 430명 정도가 있으며 5년 이상 근무자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음

2.(Q) 공공기관 해제 후 일반직, 시설지원직, 학연지원직,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지?

(A)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.

3. (Q) 다른 학교의 평의원에서도 정규직 직원들만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 유니온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?
- (A) 비정규직은 통상 2년 정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지만 카이스트의 경우,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속년수 평균은 10년임. 따라서 타 대학과 비교보다는 카이스트의 특수성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
4. (S) 평의원회의 취지는 학내의 각 구성 집단의 권익 대변이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한 협의 기구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점에 평의원 모두 동의함
- (S) 학생/직원/교원의 모든 세부 유형의 구성원이 평의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, 그것이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
- (S) 향후 평의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정비에 대해서는 졸속의 우려를 안고 시급히 처리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모두 수긍함
- (S) 다수의 무기계약직이 속해있는 유니온 지부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, 평의원회에서 무기계약직의 권익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때, 이해충돌/신원보호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가급적 배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- (S) 현재 진행 중인 평의원 선거의 입후보자격에 대해서는 평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확인함

○ [제3호] 면접문제 오류경과 및 개선방안 보고

- 면접문제 오류경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김용현 입학처장의 설명이 있었음.
- 동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·응답 및 의견 등이 있었음.

1. (Q) 합격자 발표 이후에 주무부처 보고와 민원 제기가 있었는지?
- (A) 사안 발생 직후 주무부처에 보고하였으며, 공식적으로 1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, 학교 후속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의 경우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음
2. (Q) 재발방지를 위해 검증위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이 가능한지?
- (A) 검증위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, 출제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검증기능을 강화할 계획. 최종단계에서 현직교수가 추가 검증하도록 하여 고교 교육과정 준수여부 및 문제오류 여부를 추가 검증할 예정
3. (S) 문제의 답을 구하도록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면접시 답을 구하는 방법을 논하는 등의 대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

○ [제4호] 학·석박사 통합연계과정 TUBE 프로그램 보고

- 학·석박사 통합연계과정 TUBE 프로그램에 대해 김용현 입학처장 의 설명이 있었음.
- 동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·응답 및 의견 등이 있었음.

1. (Q) 프로그램에 TUBE라고 명칭하게 된 이유는?

(A) 학생이 본 과정을 통해 학사부터 박사까지 튜브와 같이 막힘없이 간다는 의미에서 튜브로 지었음

2. (Q) 현재 박사취득까지 몇 년동안 걸리는지?

(A) 보통 10년 걸리며, 이번 과정을 통해서 7년까지 줄일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현재 운영중인 석박통합과정과 함께 다양한 학위취득 선택권을 준다는 큰 의미가 있음

3. (S) 학사 규정의 중요한 변동 사안인 만큼 이사회에 보고가 필요하며, 20대 중반에 박사과정을 취득하고 병역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진출이 가능하여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의대인력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

○ [제5호] 예술융합센터 현황 보고

- 예술융합센터 현황에 대해 석현정 예술융합센터장의 설명이 있었음.
- 동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·응답 및 의견 등이 있었음.

· (S) 학교의 경쟁력 강화로 위상이 올라가는 만큼 과학기술에 예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성과를 올릴 역량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.